

삼성 '은나노세탁기' 돌풍

에어워시 기능 호평...6월 한달 9,300대 팔려

은나노살균과 에어워시 기능을 갖춘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드럼세탁기 '하우젠 은나노 에어워시'가 국내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6월 한달 동안 9천300대가 팔려 월평균 5만대 규모의 국내 드럼세탁기 시장을 20% 가까이 점유하며 '히트상품' 대열에 올라섰다. 1~6월 누적판매량은 4만대를 웃돌고 있다.

이 세탁기는 특히 중부지방에서 비를 거의 동반하지 않은 채 습도만 높은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판매가 수직상승해 6월 판매량이 전월대비 35%나 뛰어올랐다.

출시 첫 달인 지난해 11월에만 8300대가 판매된 데 이어 12월엔 1천800대로 급성장했으며 올해는 월 20%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출시 이후 월평균 판매 성장률은 46%에 달한다.

12kg 풀옵션 제품이 170만원대에 이르는 이 세탁기는 전기 분해된 나노 은입자를 세탁조에 직접 투입, 세탁물의 항균·탈취효과를 지속시켜 여름철 땀 냄새가 옷에 배어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삼성전자 은나노 세탁기는 세탁물의 뛰어난 항균·탈취효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가을재배용 '대지 씨감자' 선착순 판매

국립종자관리소 함평지소 20일까지

국립종자관리소 함평지소(소장 민주석)는 올해 생산한 가을재배용 정부 보급종 씨감자를 20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신청순서에 따라 선착순 판매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씨감자는 가을재배용 '대지'품종으로 재배 과정 중 철저한 병충해 관리를 거쳐 국정검사를 마친 우량 종자로, 20kg단위로 포장돼 판매되며 판매가격은 아직 미정이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20kg당 1만4천210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은 해당지역 읍·면 농업인상담소(농업인상담소가 없는 지역은 읍·면사무소)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으며 자세한 문의는 국립종자관리소 함평지소(061-323-0702)에 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백화점 '伏 전쟁' 대형마트

초복(20일)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복(伏)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광주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전복삼계탕과 삼계탕용 생닭, 장어 등 여름철 보양식품들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20일까지 '여름삼복(三伏) 대전'을 열고 전복삼계탕과 생닭을 포함한 삼계탕 재료와 국내산 장어 등 여름철 보양식품을 시세보다 10~25% 싸게 판매했다. 특히 삼계탕용 생닭 300마리와 하우스 수박(9kg미만) 300통을 각각 1천750원과 7천800원에 한정 판매했다. 또 삼과 황기, 간마늘 등 삼계탕 재료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복날 관련 신선식품 3품목이상을 구매할 경우 5% 할인도 실시한다.

광주신세계 백화점도 수삼 300g을 3만6천원에, 홍삼정 농축액을 16만6천500원에 판매하는 등 10% 할인된 가격에 내놓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바다장어(100g당 3천원)와 훈제 민물장어(100g당 4천500원)는 물론 1~2만원의 선식류를 선보였고 녹조류로 플랑크톤의 일종인 대상을로렐라 3개월분을 8만5천원에 판매했다.

홈플러스도 19일까지 '여름보양식 초특가 기획전'을 열고 생닭, 전복, 낙지 등을 최고 50% 할인된 가격에 내놓았다. 생닭(중)은 1천880원이며, 해물과 이노, 지사 기능이 있는 한약재 황금을 먹여 키운 황금닭(대/특대)은 3천680원, 4천380원에 판다.

롯데마트도 18일까지 손질한 백숙용 닭(1kg 이상)을 3천980원에, 500g짜리 영계 두마리가 담긴 팩을 5천180원에 내놓았다. 이밖에 바다장어(100g당 1천

초복 앞두고 삼계탕용 생닭 등 판촉전
싸게...더 싸게... 최고 50%까지 할인경쟁



지난 4일 개점한 광주신세계 이마트가 초복을 겨냥해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전복삼계탕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980원), 민물장어(100g당 5천780~6천580원), 지리산 한우 사골 곰탕(800g당 4천380원), 한우 사골 (100g당 1천980

원)과 검은콩, 약콩, 흑미류 등을 최고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KT&G, 담배소매상 무료법률서비스 확대

KT&G 전남본부(본부장 홍문봉)가 한국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1999년부터 일부 담배소매상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전국 모든 담배소매상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KT&G는 전국 16만여명의 담배소매상들이 법률적 분쟁상황에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료 법률구조 대상은 월평균 담배판매 수입이 220만원 이하인 소매인으로 소매인지정서와 KT&G 담배사원의 확인서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바로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조대상 사건범위는 민사·가사사건, 개인과산 및 면책사건, 개인회생사건, 형사변호,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 등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아차, 송정서초등학교에 교육용차량 '그랜버드' 기증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조남일)은 최근 광주 송정서초등학교에서 대형버스 '그랜버드' 1대를 어린이 교통안전 이동교육차량으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기증했다. '그랜버드'는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개조했으며, 시청각 교육시설 및 각종 체험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차량가격은 개조비용을 포함한 1억5천만원 상당이며, 기아차는 해마다 4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종태기자 jilee@

은행권, 2008년 도입 신 BIS협약 준비 어떻게

대출자 신용도 세분화 자산건전성 확보 나서

은행들이 2008년부터 실시되는 '신BIS(국제결제은행)협약'에 대비해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출자의 신용등급 세분화를 통해 자산 건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되는 새로운 건전성 평가척도인 신BIS협약이 오는 2008년 1월부터 도입된다는 것.

일명 신 바젤협약으로도 불리는 신BIS협약은 신용도가 서로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확실적인 위험가중치(100%)를 적용하는 현행 BIS협약과 달리 기업들의 신용위험뿐 아니라 운영능력, 리스크 관리능력

▲신BIS= 기존의 은행 건전성 기준인 BIS비율을 강화한 새로운 BIS협약, 대출자의 신용위험을 더 정교하게 평가하고 운영위험을 추가해 은행의 적정가치자본을 산출하는 새 평가척도이다. 지난 2004년 6월 신BIS협약을 최종 확정했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오는 2008년부터 이 협약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같은 자산이라도 대출자의 위험도에 따라 자기자본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태스크포스팀 구성...신용 평가시스템 개선

안전대출위해 위험도 20~150%까지 차등

까지를 반영해 위험가중치를 20~150%까지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기업 등 우량고객일수록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대출이자도 낮아지지만 부실고객은 대출 자재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벌써부터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에 나서는데 벌써부터 움직임이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 5월 신BIS 추진에 대비해 '리스크관리부'내에 상근 11명 비상근 9명으로 TFT를 결성하고 오는 2007년 3월까지 기존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현재 광주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위주의 개인, 신용카드 고객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대출시 적용되고 있다.

광주은행은 그러나 신BIS협약에 대비해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의 경우 대기업, 비외국기업, 특수금융으로 세분화하고 소매신용평가시스템은 담보와 신용대출을 구분하는 동시에 소규모 기업과 신용카드는 기

업형과 가계형으로 나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이에 앞서 6명으로 신용평가모형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분석 전문연구원 2명을 채용, 자산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신용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004년 4월 CSS(고객신용평가시스템)를 도입한 국민은행도 신BIS협약 도입에 대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스템 검증과 보완단계에 들어갔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말 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업무에 적용하며 기존 미달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이 은행들의 안전대출 차등현상을 가속화시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의 돈을 빌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기업에 비해 평균 0.56%포인트 더 높은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격차를 더 벌리고 개인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 안전자산위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제주시 자귀동 축제
한정판 50% 할인, 물고기, 완두콩
제주시 자귀동 축제
071-1312, 011-804-7357

경제회센터
경제회센터
011-809-7330

7월 공무원
공무원, 경찰직, 중개사
전남고시학원
011-222-5105

전립선 J2V
전립선 J2V
호남지사 01588-3871